

지방의 요구 충족시킬 내용 전혀 없다

■ 지방발전종합대책 뭘 담나

세계 개편 통한 지원만 구체화 할듯 野·비수도권 장외 투쟁 예고 긴장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비수도권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비수도권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이 불거질까 때문이다.

◇지방발전종합대책 전망=일단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발전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따른 선도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 발전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상쇄할 만한 새로운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원 방안과 효과를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추진, 지방 피폐 우려=여기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함께 광역단체장에게 개발계획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지방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폐지안과 함께 제출하는 제정안은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세우도록 해 광역단체장의 수도권 성장관리와 목표설정 등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신장시켰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등 권역과, 정비발전지구·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차 의원은 이 같은 제정안을 다음주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안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 대폭 이양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지방의 반발을 더욱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와 함께 지방의 피해가 더욱 더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및 정치권 반발=지방발전종합대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비수도권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장외 집회나 시위를 등 강력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다. 벌써 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지방순회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29일 충남 국립공원 계룡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자,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득보다는 실 ... 농어촌 교육 붕괴 우려”

■ 대교협 '3불 폐지' 언급 ... 지역 교육계 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 정책'(고교등급제·보고사·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보고사 금지가 풀릴 경우 ▲수도권 특목고 우선의 입시전형 ▲보고사 부활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 등 지방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협의 회 내 구성원 테스트(TF)를 통해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고교등급제와 보고사 실시는 대학자율로 뒤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가 부활하게 되면 대학은 우수 학생 선발, 교과는 명문고 있을 경우라도 이들이 고교등급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사 부활'은 보고사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고, 학생 선발권을

그러나 고교 서열화와 과열경쟁, 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촌이나 변두리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져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명문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한 학교가 아닌 일반 고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고교등급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사 부활'은 보고사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을 과거처럼 '입시 지역'으로 내몰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교육적으로 소외돼 지역간 갈등과 소외를 부추기게 되고, 지방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 허용도 정부로부터 재정적 간섭을 줄여 대학자율권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고, 계층간 위화감 및 갈등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8 남극 빈슨 매시프 원정대 발대

'세븐 서미트' 마침표 찍는다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5·에코바 호남이사)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목표는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 12년동안 매달려온 세븐 서미트(Seven Summits·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대장정이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도 함께 담아간다.



지난달 29일 순천시 인월동 메디칼재활요양병원 광장에서 열린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발대식 직후 대원들이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빈 원정대장, 정후식 대원, 위계룡 단장, 박상수 부단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08 남극 빈슨 매시프 원정대' 원정 경로



11일 출국 ... 추위·강풍 극복이 성공 관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기원도

빈슨 매시프는 연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를 이르고 '풍극(風極)'이라 불릴만큼 눈을 동반한 강한 폭풍설(블리자드)이 쉽게 불어 추위와 강풍 극복이 등정의 관건이다. 같은 날씨로 인해 관문인 폰타 아레나스나 패트리어트 힐, 베이스 캠프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도 원정대를 조바심나게 만들곤한다. 낮은 기온 때문에 텐트 천이 수축돼 똑바로 세우기 어려울 정도이고 20시간 이상 낮이 지속되는 백야현상은 대원들의 휴식을 방해한다.

김 대장은 "히말라야 거봉들 처럼 고도의 등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매서운 바람과 살을 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 출신의 촉망받는 산악인이자 스키선수였던 그는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단독 등반 도중 동상에 걸려 양 손의 손가락

을 모두 산에 바쳤다.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이나 포기에는 없었다. 6년여의 공백 끝에 다시 암장을 오르며 고산 등반의 의지를 다졌고 꿈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었다.

7대륙 최고봉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가셔브롬II(8,035m)와 시암마 남벽(8,027m), 에베레스트(8,848m), 마칼루(8,463m)를 잇따라 올라 8,000m급 14좌 도전도 계속하고 있다. 무명의 등반가로서 원정비 마련조차 쉽지 않아 속앓이가 컸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항상 웃음을 잃지않는 여유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그가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이유다. "정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경제난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으면 합니다" 김 대장의 출사표다.

본보 정후식 기자는 대원으로 참여해 등반의 전 과정은 물론 자신의 보고이자 지구온난화, 한국의 제2기 건설 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남극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KTF, 광주시, 순천시, 순천메디칼재활요양병원, 금광기업이 후원하며 (주)에코바에서 협찬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18정신은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살아 숨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5.18관련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단지는 원형 보존됩니다.

5.18정신은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살아 숨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5.18관련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단지는 원형 보존됩니다.

5.18정신은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살아 숨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5.18관련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단지는 원형 보존됩니다.

5.18정신은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살아 숨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5.18관련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단지는 원형 보존됩니다.

